

대학 교양 국어 변천사

주경희*

〈차 례〉

- I. 서론
- II. 학습 목표의 변천
- III. 교과 내용의 변천
- IV. 교과 운영의 변천
- V. 맺음말

I. 서론

이 글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양 국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대학 설립과 함께 개설된 ‘교양 국어’는 교양 학부에서 실시하는 과목명으로 ‘대학 국어’, ‘일반 국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이들 과목명은 현재 일부 대학에서 사용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교양 국어’를 ‘대학의’ ‘교양 학부’에서 실시하는 ‘국어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현재 ‘교양 국어’라는 과목명이 사용되더라도 내용 구성이나 학습 목표가 개설 초기와는 많이 다르고 대개의 대학에서는 교재 내용에 따라 ‘실용국어’, ‘고급 국어’, ‘작문’, ‘국어와 작문’, ‘글쓰기’, ‘사고와 표현’, ‘국어’, ‘작문의 실제’, ‘글쓰기와 읽기’ 등 여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종대학교

대학의 교과 과정은 학습자의 필요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면에서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일반적 추세에 비해 교양 국어가 30여 년 동안 내용이나 교과명의 변화 없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목이 민족주의 차원에서, 정부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교양 국어의 과목 개설의 당위성이 학습 목표, 학습자, 과목 내용 구성 등과 같은 과목 자체 요인보다는 과목 외적인 요인이 과목 개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교양 과목에 비해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학습 목표, 과목 정체성, 동기 유발, 내용 구성의 적절성 등과 같은 과목 내적인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한 채 개설된 이 과목은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된 문제점들은 '교양 국어 무용론'이라는 주장으로 터져 나오고 이것을 분기점으로 교양 국어는 변화를 시도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교양 국어를 개설한 논의의 초점이 학습자와 대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필수과목으로서의 당위성도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학습자 필요와 교육적 효과의 측면에서 논의해야 할 단계로 진입하면서 교양 국어는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각 대학에서 출간된 교양 국어 교재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 교재 및 교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의 국어교육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II. 학습 목표의 변천

이 장에서는 학습 목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의 변천은 한마디로 '학습 목표의 명료화 및 세분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는 학습 목표가 아예 없거나 교양 교육과 동일한 목표로써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어가 정책 과목에서 대학의 기초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보다 명료하고 세분화된 학습 목표를 지향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에는 분명한 학습 목표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1978년도에 출판된 어느 대학의 교양 국어의 머리말이 “과거 우리나라 대학 교양 국어 교재가 대부분 확고한 교육목표와 이념을 지니지 못했고, 이에 따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교육방법이 수반되지 못했던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라고 표현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¹⁾

필자가 검토한 1970년대에 각 대학이나 출판사에서 나온 ‘대학국어’, ‘교양 국어’의 교재 중에서 더러 머리말이나 일러두기가 없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겉표지 다음에 바로 목차로 이어지는 교재의 이러한 구성은 해당 교재의 편찬 목적과 과정이 일정한 원리나 이론 혹은 학습 배경 등에서 이루어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교재 출판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학습 목표의 부재 혹은 도저히 교양 국어 과목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없는 목표 설정 등은 과목 내의 여러 문제를 잉태하는 계기가 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를 일반적인 교양 과목의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여러 교재에서 제시하는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민족문화에의 관심 및 애착, 폭넓은 교양인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및 세계인으로서의 넓은 시야 확보, 문장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교양, 날로 변동하는 세계상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고 능력의 계발, 나와

1) 일일이 출전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대학 명으로 표기되는 교양 국어의 출전을 밝히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개 각 대학의 교재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역시 그 출전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생동하는 역사 감각을 되찾아서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힘” 등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학습 목표 설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학에서 국어를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결여는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학습 목표로 나타나며, 이는 과목의 정체성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다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의 어려움과 관련되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이를 좀 더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가 국어교육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정되지 못한 까닭에 ‘민족 문화, 교양인, 한국인, 대학생활, 지성인, 문학, 말’ 등과 같은 영역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교양 국어의 지향점을 알기 어렵고 또한 도달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어렵게 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알기 어려운 결과를 낳게 한다.

이렇게 축적된 문제가 바로 ‘교양 국어 무용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명료하지 못한 학습 목표 설정으로 인해 야기된 교양 국어에 대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국어 교육에 대한 희망과 바람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이주행(1996)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이 ‘교양 국어’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여 수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의 독해 중심의 교육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학습자들이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국어 교육은 그들이 대학생들이나 졸업 후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은 주로 리포트를 쓰거나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글쓰기나 글의 요약 및 개요 작성 능력의 향상 혹은 말하기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교양 국어 무용론’의 주장이 가진 이면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교양 국어는 학습자의 필요를 고려한 혹은 대학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보다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

이 있는 내용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모색은 국어를 대학 생활을 이루는 모든 학문 분야의 도구적 기초 과목으로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즉 국어를 이해력, 표현력, 사고력의 증진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보다 구체화, 명료화 된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대학마다 그 목표 설정이 동일하지 않으나 크게 표현과 이해, 국어와 문학의 이해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각 대학에 따라 “국어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신장, 사고력 신장, 독해력 향상, 국어 및 언어의 바른 이해, 언어 능력 향상, 언어학적 지식 획득, 문학의 이해, 정서 함양, 문학의 해석력 신장” 등과 같은 학습 목표 설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와 비교했을 때 구체화, 세분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이 구체화 되면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고, 과목의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교양 국어가 필수 과목으로 될 수 있는 타당성을 정책적 차원이 아닌 교과내적인 입장에서 획득할 수 있고, 대학 1학년 신입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교양 국어를 개설할 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의 명료화는 교재 내용의 변화를 수반한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교과 내용의 변천

교재 내용의 변천 과정은 ‘독해에서 글쓰기로의 집중 혹은 특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는 언어, 문학, 한국인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된 글재를 제시하는 독해 중심의 교재였다. 이러한 교재에 글쓰기 영역이 추가된 것은 독해 중심 교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의 필요를 고려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교양 국어는 독해 중심 교재에서 독해와 글쓰기 두 영역으로 구성된 교재로 바뀐다. 그런데 최근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글쓰기로 집중화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독해 내용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영역들이 과목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교재 내용의 변천 과정을 독해와 글쓰기 영역의 두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해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 교재는 대개 문학과 언어와 사상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된 글재 즉 읽기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 교양 국어 과목명으로 '언어와 문학과 교양'을 택했던 대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과목의 특성을 보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교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언어 생활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문학 유산의 이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작품 및 역대 학자들의 명문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이룩한 민족문학의 흐름을 탐색하게”하는 것이 교양 국어의 목표였다. 이러한 독해 중심 교재는 크게 대학생활이나 학문 관련 영역, 말과 글 영역 그리고 문학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 제기하는 한 예가 가장 일반적인 구성 방법으로 여겨진다.

- ① 대학생활과 학문을 다룬다. 이 영역에서는 학문과 인간형성, 전통의 현대적 의미, 동양적 인간형, 대학과 대학생활, 학문의 길, 지식의 영역과 학문의 분야와 관련된 논설문이나 설명문을 제시한다.
- ② 말과 글의 문제점을 다룬다. 대개 말의 정의와 개념, 말에의 사랑, 국어에 나타난 사회성, 한글과 국어, 국어 순화 등을 주제로 하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문학의 감상을 제시한다. 시의 세계, 소설, 희곡의 세계, 수필 등 각 장르별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의 작품들을 10편 이상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독해 중심 교재는 많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으며, 당시의 고등학교

교재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면 이러한 교재는 학습자들의 대학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 생활이나 실제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된 글들을 제시한 교재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국어사용’, ‘언어예절’, ‘언어의 효용’, ‘말과 생각’, ‘말의 의미’, ‘우리말의 논리’, ‘대화의 요령’, ‘평소의 대화’, ‘영화 평’, ‘삶 읽기와 소설읽기’, ‘영화 읽기’, ‘문화비평’, ‘시론’, ‘가상자와 사 이보그’, ‘전통 문화와 콘텐츠’와 같은 것들이다. 이들 내용을 대학별 특성에 맞게 제시하여 독해 내용의 변화를 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교양 국어의 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한 것들로 학습자의 필요성 및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점차 독립 과목으로 분화하여 개설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005학년도 교양 교육 교과 과정에서 이러한 면을 찾을 수 있다. 즉 ‘토론의 이해와 실제’, ‘말하기의 실제’와 같은 화법 영역 과목들과 ‘현대 수필의 이해’,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와 같은 문학 영역 과목이 그리고 ‘문학과 영화’, ‘문학과 표현’, ‘문학과 대중 문학’, ‘한국 문학과 인간상’, ‘한국 문학과 자연’, ‘한국어와 한국 문학’, ‘문학과 영화의 만남’, ‘사이버 공간과 문학’과 같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들이 독립적으로 개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교양 국어를 구성하고 있던 영역이 분화하여 독립 과목을 이루어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²⁾

2) 이외 국어와 문학,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 고전문장의 이해, 문예창작 실기론, 문예 창작, 한국 문학 작품과 텍스트 분석, 문학과 예술, 문학개론, 비교문학개론, 한국문학과 세삼세계문학, 한국문학과 민속, 한국문학과 사상, 한국문학과 사회, 한국문학과 동양문학, 한국문학과 서양문학, 동양의 고전, 시의 이해, 소설의 이해, 희곡의 이해, 문학비평의 이해,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한국한문학의 이해, 문학과 철학, 법과 문학, 언어와 인간, 언어와 문학, 국어의 문법과 맞춤법, 언어의 이해, 국어 화법, 학술논문 작성법, 국어 문제와 수사학법률 문장론 등에서 기존의 교양 국어를 구성하고 있던 영

교양 국어의 중심을 이루는 독해 영역의 독립 과목으로의 분화로 교양 국어는 글쓰기 영역으로 집중화, 특성화 하고 있다. 글쓰기로의 집중화 경향은 독해 영역의 과목 분화와 같은 시기에 일어나지만 이것이 글쓰기를 강조한 결과인지 아니면 독해 영역의 심화를 위한 결과인지 그 선후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양 국어라는 단일 과목이 여러 과목으로 독립 분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과목의 필수 혹은 선택으로의 운영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독해 중심 교재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글쓰기 영역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른 시기의 글쓰기 영역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전개 방법, 실용문, 논문작성법이나 한글 맞춤법, 고사성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문의 일반적 절차, 글의 구성, 문단의 전개, 단락의 구조, 식사 및 연설문, 뉴스 기사문, 광고문·선전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연습 과정 및 글을 쓰는데 필요한 기술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을 취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의 교재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몇 몇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A라는 교재에서는 '글을 펼쳐 가는 과정, 글의 흐름과 짜임새, 글쓰기의 형태와 방법, 문체, 수사법, 언어형식과 규범, 교쳐 쓰기'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B라는 교재에서는 '개요 작성하기', '글의 요약문 작성하기', '정의하기, 분류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서술하기'와 '논증하기' 등처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들로 구성하기도 한다.

C라는 교재에서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글을 수정하기 위해 토론 과정을 도입하기도 한다.

각 대학의 교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글쓰기 결과보다는 글쓰

기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실제적인 연습과 적용을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재에서는 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양 국어가 글쓰기로 집중되면서 글재의 사용 방식을 달리하여 제시하는 교재도 있다. 기존의 교양 국어에는 독해 즉 강독을 위해 제시되었으나 점차 개요 작성이나 글의 기술 방법을 위한 읽기 자료로 제시하여 종래의 읽기 자료에서 글쓰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로 들면 ‘전통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통에 대해 알게 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 종래의 자료 활용 방법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글재를 통해 글의 기술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글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혹은 가장 활용하고 있는 글의 기술 방법인 ‘정의’에 대해 ‘정의하기, 정의의 개념, 정의의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독해를 위한 글재가 이제는 글쓰기를 위한 것을 제시되고 있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학습 목표를 실천하는 제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글쓰기 중심의 교양 국어는 어떤 전공분야에 속하는 학생들이라도 자기 전공분야의 학술적인 글을 쓰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분명하고 명료한 학습 목표와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필수 과목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는 교과 운영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개설한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태(1996)에서는 1996년도 당시 교양 국어 운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2005학년 자료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로 한다.³⁾

- 3) 1996년도 국어국문학회에서 실시한 ‘대학 교양 국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논의와 현재의 교양 국어의 운영 실태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잘 나타난다. 1999년도 국어국문학회의 논의는 ‘교양 국어 교육 시행의 반성’(박갑수), ‘대학 교양 국어 교육 시행의 현황’(이상태), ‘대학의 교양 국어’(김태준), ‘미국대학의 일반영어교육’(송기중), ‘21세기 사회변화와 대학의 교양 국어’(이남호)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각 주장이 내용을 2005년 시행하고 있는 교양 국어의 학습 목표, 교재 내용, 교과 운영

A대학에서는 1996학년 '국어 작문'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였다. 그런데 2005년에는 '사고 및 표현'을 개설하였다. 이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종래 '국어 작문'이 갖는 독해 위주에서 현실성 있는 표현 위주 즉 글쓰기 위주로의 방향 선회라고 할 수 있다.

B대학에는 1996학년에는 '글쓰기와 삶', '글과 삶'을 개설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학부기초 과목으로 '글쓰기'로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글쓰기와 독해를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글쓰기만을 기초과목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서도 교양 국어가 글쓰기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대학에서는 1996학년도 '국어와 작문'을 2005학년도 '국어'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국어와 작문'이 독해와 작문의 이원 체계였다면 '국어'는 글쓰기 중심 과목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대학 역시 앞에서 제시한 대학과 그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대학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양 국어가 글쓰기로 특성화하면서 이를 1학년 신입생들에게 전공에 상관없이 제시하는 공통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과목 분화에 따른 다른 영역 즉 '화법', '문학' 등의 과목은 학교 사정에 따라 필수 및 선택 양 체제를 형성하여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IV. 교과 운영의 변천

교과 운영에서의 변천이란 교양 과목 운영 체계 속에서 교양 국어의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의 개설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는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교양 국어 무용론'을 계기로 이 지위는

상황들에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년 전에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이제는 수용되면서 실시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교양 국어가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흔들리면서 일부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필수 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의 변화는 과목 생존권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교양 국어의 교과 운영은 많은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데 교양 국어의 교과 운영 체계는 교양 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대학의 교양 교육 체계가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이라는 이원 체제 일 때에는 필수 혹은 선택이라는 단순한 교과 운영 체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양 교육이 대학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간단하게 논의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2005년 현재 대학의 교양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의 교양 교육 체계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만 언급할 정도로 대학마다 용어, 과목명, 학점 수 등 동일한 모습이 없다. 그중 공통점을 열거하면 기존의 필수 과목은 기초과목, 핵심교양, 기초교양 등의 이름으로, 기존의 선택 과목은 일반교양, 생활교양, 기본 교양, 선택 교양, 교양기초과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양 국어의 경우 학교에 따라 과목의 이름이나 종류, 필수 여부, 학점수와 배정 시간 수 등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장에서 교양 국어 관련 교과 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두 입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먼저 교양국어가 과목명이던 시절의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의 변천 과정을 다루기로 한다. 그 다음 교양국어가 글쓰기 중심으로 되면서 나타나는 교과 운영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의 교과운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의 교양 국어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학습 목표가 명료하지 않고 독해 중심의 교재 내용을 가지고 있던 시기로 개설 초기부터 교양 국어는 자동적으로 필수 과목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필수 과목 당위성을 확보하던 교양 국어가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교양 교육 무용론'이라는 주장에서부터이다. 이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양 국어는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그 지위가 불안해 지기 시작한다.

1966년에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41개 대학이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198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92개 대학 중 75개의 학교가 국어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26개교가 교양 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모두가 아닌 일부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양 국어를 개설한 것은 절대적 필수 과목의 지위 상실을 한 것으로 필수 과목으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교양 국어의 과목 생존권의 유지 노력은 단순한 이념이나 정책에서 오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교양 국어의 인식의 변화를 꾀해 교과 내용이나 교수 방법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써 필수 과목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교양 국어의 교과 운영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과목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교양 국어는 사실상 여러 과목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서두에 교양 국어를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실시하는 국어교육이라고 정의 내린 것도 이 까닭이다.

교양 학부에서 교양 국어를 구성하던 문학, 글쓰기, 읽기, 화법 관련 영역들을 독립 과목으로 개설하면서 이들의 필수 혹은 선택 여부는 교과 운영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학교의 교양 과정 운영 목표나 특성, 교과목의 이수 난이도, 수강생의 전공 능력 필요성을 고려해야 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처럼 대학에 따라 교양 국어의 교과 운영이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개의 대학들이 글쓰기 과목을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과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교양 국어는 과목 분화를 이루면서 글쓰기로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교양 국어 운영 체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교양 국어의 교재 구성이나 교과 운영 방법은 각 대학마다 일률적이었으나 이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도 교양 국어

의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의 이념이나 목표 그리고 특성에 따라 교양 국어는 다양한 교과 운영 체계를 보이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교양 국어가 점차 학습자들이 필요를 인식하여 실질적인 입장에서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교양 국어의 변천사를 학습 목표, 교재, 교과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양 국어’는 언어, 문학, 작문 등 국어의 세 영역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막연한 범주를 지닌 과목에서 점차 ‘글쓰기’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해를 구성하고 있던 영역들은 독립 과목으로의 분화하고 있다.

학습 목표 면에서 볼 때 교양 국어는 점점 명료화 하고 세분화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교양 국어는 과목 개설의 당위성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한 과목으로 학습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과목의 정체성의 확보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교재 내용이나 수업 방법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교양 국어 무용론으로 촉발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가 분명해지면서 필수 과목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교재 구성도 보다 실천적인 내용들로 구성하게 한다.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양 국어는 글쓰기 중심을 지향하게 되며 보다 심화된 교육을 위해 교양 국어 과목 내의 여러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되면서 각 과목의 특성화를 이루게 된다. 이를 통해 과목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 본 논문은 2005. 10. 25. 투고되었으며, 2005.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남두·김영식 엮음(1996), *대학개혁의 과제와 방향*, 민음사.
- 김봉균(1987), “대학에서의 국어과 교육”, *국어교육*59, *한국어교육학회*, 103~115.
- 김슬옹(1997), “교양 국어를 없앤다고요?”, *월간사회평론* 97-4호, 102~109.
- 김태준(1996), “대학의 교양국어”,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485~497.
- 김현룡(1989), “대학 교양국어의 개선방향”, *새국어교육*45, *국어교육학회*학회, 158~161.
- 마광수(1989), “대학 교양국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국어교육*45, *국어교육학회*학회, 155~158.
- 박갑수(1996), “교양국어교육시행의 반성”,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433~460.
- 손용주(1995), “국어교육정책과 대학교양국어”, *우리말글*13호, *우리말글학회*, 323~350.
- 송기중(2003), “교양국어교육의 목적과 범위”, *어문연구*120, *한국어문교육학회*, 407~433.
- 윤재천(1989), “대학 교양국어의 문제점과 개선책”, *새국어교육*45, *국어교육학회*학회지, 150~155.
- 이남호(1996), “21세기 사회변화와 대학의 교양국어”,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521~548.
- 이대균(1996), “대학의 변화와 대학교양국어교육의 개선방향”,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549~573.
- 이상태(1996), “대학교양국어교육시행의 현황”,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461~484.
- 이성호(1987), *대학교육과정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주행(1996), “대학 교양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91, *한국어교육학회*, 129~173.

각 대학 교양 국어교재.

[교양국어]

- 교양국어편찬위원회(1991), *문화와 언어*, 단국대학교출판부.
- 국어교재편찬위원회(1972), *교양국어*,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대학교양국어편찬위원회(1964), *교양국어 : 대학*, 일신사.
- 대학국어교재연구회(1998), *대학교양국어*, 문창사.
- 대학국어교재편찬회(1984), *교양국어*, 학문사.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5), *우리 말·글·생각 : 작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양대학교(1969), *교양국어*, 일조각.
- 한양대학교(1975), *교양국어*, 한양대학교.

[대학국어]

- 고려대학교(1972), 대학국어, 고려대학교 출판부.
 교양국어연구회(1979), 대학국어, 형설출판사.
 국어교재연구회(1986), (신편)대학국어, 학문사.
 국어교재편찬회(1985), 교양대학국어, 학문사.
 국어국문학회(1962), 대학국어 : 신편, 신구문화사.
 고려대학교(1998), 언어와 사상,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1996), 언어와 표현, 고려대학교.
 대학국어교재연구회(1975), 교양대학국어, 신구문화사.
 대학국어교재연구회(1961), 대학국어, 현문사.
 대학국어교재편찬회(1984), 교양국어, 학문사.
 대학국어교재편찬회(1994), 대학국어, 학문사.
 대학국어편찬회(1997), 한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학문사.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1975), 대학국어, 동국대학교 출판부.
 동국대학교 국어교재연구회(1966), 대학국어, 진수당.
 부산대학교(1981), 대학국어, 학문사.
 서울대학교(2004),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성균관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5), 대학국어, 성균관대학교.
 수도여자사범대학(1974), 대학국어, 수도여자사범대학출판부.
 숭실대학교(1993), 대학국어, 숭실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1978), 대학국어,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1977), 대학국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중앙대학교(1995), 언어와 문학과 교양, 중앙대학교출판부.
 홍익대학교 국어교재편찬위원회(1998), 대학국어작문, 홍익대학교출판사.

<초록>

대학 교양 국어 변천사

주경희

이 글에서는 대학 교양국어의 변천사를 학습 목표, 교과 내용, 교과 운영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양 국어'는 교양 학부에서 실시하는 과목명으로 '대학 국어', '일반 국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고 현재도 일부 대학에서 사용되기도 하나 내용 구성이나 학습 목표가 개설 초기와는 많이 다르고 대개의 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교양 국어'를 '대학의' '교양 학부'에서 실시하는 '국어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교양 국어는 과목 학습의 목표가 보다 명료하고 세분화되면서 교과내용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 시기의 교양 국어는 교과 외적인 이유 즉 정책이나 이념으로 인해서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었기에 학습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다. 학습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일반 교양 교육 목표로도 제시되어 교양 국어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가 된다.

교과내용은 다양한 독해 내용을 제시하여 독해 중심의 교재를 구성하였으나 학습 목표가 학습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다 세분화 되면서 글쓰기 영역으로 심화 특성화 되고 있다. 현재의 대학에서는 글쓰기 중심으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영역이외의 문학이나 화법 등으로 과목이 분화되면서 내용은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교과 운영 면에서 필수 과목으로 제시되던 교양 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면서 교양 국어 운영 체계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교양 국어의 독해 영역이 여러 과목으로 분화하면서 글쓰기 영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글쓰기는 필수 과목으로 그리고 다른 영역들은 선택과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마다 교양 교육 체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교양 국어의 운영 체계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쓰기를 가장 근간이 되는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교양 국어는 점점 학습자들이 대학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교양 국어, 학습 목표의 명료화, 글쓰기 중심 교재, 교과 운영,

<Abstract>

History of Mandatory Korean

Chu, Kyung-hee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history of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liberal educati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liberal education encompasses linguistics, literature, the tradition of Korean culture, writing and more.

Because of these varieties it is difficult to find competent people for teaching as well as what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s. Further, for the composition class, it was difficult to find time to do actual writing and then receive correction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would be ideal to form special subject classes for each specialty field so that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can be presented. To carry out this approach, a composition class is presented as a required class while the rest is presented as optional classes. As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liberal education as a core curriculum are divided into several classes, the material itself has been going through changes.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liberal education includes many writings with primary focus on reading. But as each field has been made an independent class by itself, there has been more focus on practicality and as a result there has been surfacing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ies. In the future as the society we live in go through changes, we must seek corresponding changes to the values of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in universities.

[Key words] mandatory Korean, Clarification of Lesson Objectives, writing-oriented Textbooks, Curriculum Management